



LUND UNIVERSITY

' AI' ,

The Road to Sovereign AI: Sweden's Strategic Choice

Kim, Heyjin

Published in:
Global Insights Report from Gyeongbuk Overseas Export

2026

[Link to publication](#)

Citation for published version (APA):

Kim, H. (2026). '주권 AI'로 가는 길, 스웨덴이 보여준 선택: The Road to Sovereign AI: Sweden's Strategic Choice. *Global Insights Report from Gyeongbuk Overseas Export*, 25.

Total number of authors:

1

General rights

Unless other specific re-use rights are stated the following general rights apply:

Copyright and moral rights for the publications made accessible in the public portal are retained by the authors and/or other copyright owners and it is a condition of accessing publications that users recognise and abide by the legal requirements associated with these rights.

- Users may download and print one copy of any publication from the public portal for the purpose of private study or research.
- You may not further distribute the material or use it for any profit-making activity or commercial gain
- You may freely distribute the URL identifying the publication in the public portal

Read more about Creative commons licenses: <https://creativecommons.org/licenses/>

Take down policy

If you believe that this document breaches copyright please contact us providing details, and we will remove access to the work immediately and investigate your claim.

LUND UNIVERSITY

PO Box 117
221 00 Lund
+46 46-222 00 00

2026

Vol.2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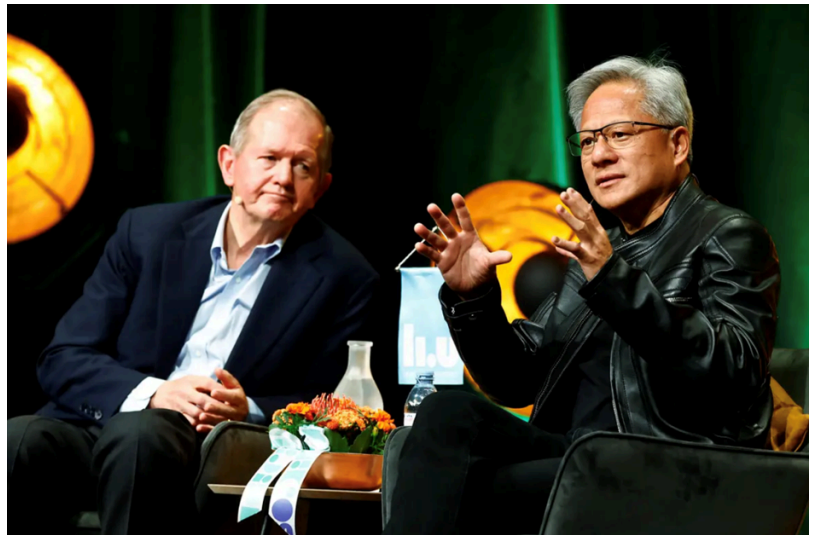
지난호 보기

‘주권 AI’로 가는 길, 스웨덴이 보여준 선택

경북 수출지원 해외 서포터즈 글로벌 리포트

Vol.25

인공지능(AI)은 산업 경쟁력을 좌우하는 핵심 인프라로 부상했으며, 현재 국가 전략의 필수 구성 요소로 자리 잡고 있다. 데이터와 연산 능력을 통제하는 역량은 경제 대로 접어들었다. 이러한 문제의식 속에서 스웨덴은 합작법인 스페리컬 AI(Sferical AI)를 설립하며 커다란 주목을 받고 있다.



엔비디아(NVIDIA)의 CEO 젠슨 황(Jensen Huang)과 스웨덴의 마르쿠스 발렌베리(Marcus Wallenberg)는 AI, 친환경 컴퓨팅, 스칸디나비아 지역의 기술 생태계 협력 방안을 논의하기로 합의했다.

(출처: 스웨덴 헤랄드)

스페리컬 AI는 아스트라제네카(AstraZeneca), 에릭슨(Ericsson), 사브(Saab), SEB 은행, 발렌베리 인베스트먼트(Wallenberg Investment) 등 스웨덴을 대표하는 기업의 목표는 명확하다. 해외 빅테크 기업이 주도하는 클라우드 인프라 의존도를 낮추고, 자국 내에 세계 최고 수준의 AI 연산 능력을 구축하는 것이다. 이들이 강조한 전략적 판단으로 이해해야 한다.

그동안 AI 인프라 구축은 비용과 효율성을 이유로 글로벌 클라우드 기업에 위탁하는 것이 일반적인 선택이었다. 하지만 기술 의존이 심화되면서 데이터 주권과 공급, 생명과학 등 국가 핵심 산업과 직결된 분야에서는 AI 인프라를 외부에 전적으로 의존하는 방식의 한계가 점차 드러나고 있다. 이에 스웨덴은 개별 기업 간의 경쟁택했다.



린세핑 대학교(LiU) 캠퍼스.

린세핑 대학교는 국가 방위 산업과의 긴밀한 협력과 유명 기업 사브(Saab AB)의 본거지로 알려져 있다.

(출처: 린세핑 대학교 홈페이지)

대학교와 항공 기술 산업의 중심인 스웨덴 남부 린세핑에 구축되는 스페리컬 AI 시스템은 엔비디아의 차세대 AI 슈퍼컴퓨터 플랫폼인 최신 DGX 슈퍼팟(SuperPOD) 연결된 이 인프라는 대규모·복합 AI 모델을 산업 현장에 즉시 적용할 수 있는 연산 능력을 제공한다. 중요한 점은 인프라의 규모보다 통제권이 스웨덴 산업 내부에 유재적 위험까지 자국 차원에서 관리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준다.

전통 제조업 강자인 SKF가 전략적 파트너로 합류한 점도 시사하는 바가 크다. SKF는 자동차, 철도, 풍력발전, 항공기 등 각종 산업 설비에서 회전과 마찰을 제어하는 통수단, 에너지 설비가 안정적으로 작동하도록 뒷받침하는 '산업의 기본 기술'을 오랫동안 축적해 온 기업으로 평가받는다.



1907년 설립된 세계 최대 베어링 제조업체 SKF가 주권 AI 스페리컬 프로젝트에 합류하며 주목을 받고 있다.

(출처: SKF 홈페이지)

방대한 설비 운용 경험과 공정 데이터를 보유한 제조 기업이 주권적 AI 인프라 구축에 참여한 것은 의미가 깊다. SKF에 AI는 설비 고장 예측, 유지보수 최적화, 생산이다. 이를 위해서는 대규모 데이터를 안정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고성능 연산 환경이 필수적이다. 스페리컬 AI의 컴퓨팅 인프라는 산업용 AI 활용을 소규모 프로젝트 있는 기반을 제공한다. 이는 AI가 제조업을 포함한 산업 전반의 경쟁력을 재편하는 핵심 요소가 되었음을 뜻한다. 이제 AI 인프라는 선택의 문제를 넘어 산업의 지속

스페리컬 AI는 인프라 구축과 더불어 인재 양성 및 생태계 조성을 추진하고 있다. 엔비디아 AI 테크놀로지 센터 설립과 교육 프로그램 구상은 하드웨어만으로는 AI 경 AI의 성패가 기술 자체보다 이를 설계하고 운영하며 활용할 수 있는 역량의 축적에 달려 있음을 시사한다.

이제 한국의 상황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한국 역시 AI를 국가 전략 기술로 지정하고 대규모 투자를 지속하고 있다. 기업과 연구기관을 중심으로 AI 도입이 가속화되고 있으나, 산업 전반에서 공유할 수 있는 다. 스웨덴의 사례는 우리에게 시사점을 준다. AI 도입 속도보다 중요한 과제는 어떠한 체계 위에서 이를 운영하고 통제와 책임의 주체를 어떻게 설정할 것인가 하는 필요는 없으나, AI 시대의 경쟁력이 속도만으로 결정되지 않는다는 점은 분명하다. 장기적인 통제력과 신뢰를 어떻게 확보할 것인지에 대한 전략적 고민이 필요한 시 공유하는 협력 대상으로 모색할 기회가 열릴 수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 위 원고는 현지 외부 전문가가 작성한 원고로, (사)경북PRIDE기업 CEO협회의 공식 의견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8.jpg \(516.6KB\)](#), Download:0

[HOME](#)

[뉴스레터](#)

[구독하기](#)



38430 경상북도 경산시 하양읍 하양로 13-13 대구가톨릭대학교 산학협력관(B8) 308호

COPYRIGHT © GPC WEBZINE. ALL RIGHTS RESERVED.

[블로그 바로가기](#)